

보도 일시	2022. 8. 26.(금) 09:00	배포 일시	2022. 8. 26.(금)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3-3167)

##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8. 26. 제2차관 주재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 개최, 개최 후보 지자체 등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26일(금),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시아축구연맹 실사 대응, 대회 시설 최적화 협조 방안 등 구체적으로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대한축구협회가 6월 30일(목), 아시아축구연맹(AFC)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는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아시아축구연맹(AFC)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조용만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4개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10월 17일에 개최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